

	<b>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결기소장
		일시	2024. 3.

## CEPA Insight

- 베트남에 위치한 네 곳의 삼성 생산공장에서 삼성 매출의 33%에 기여
- 베트남 내 배터리, 포장지 재활용 관련 조건을 갖춘 곳은 24개 기업으로 확인
- 베트남 총리 Viettel, VNPT, Mobifone에 반도체 칩 연구할 것을 요청
- 베트남 전문가들, 베트남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제시

### ■ 베트남에 위치한 네 곳의 삼성 생산공장에서 삼성 매출의 33%에 기여

- 베트남에 위치한 4개의 삼성 계열사가 지난 2023년 삼성의 글로벌 매출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의 삼성전자에 있어서 변동이 많은 한 해였는데, 글로벌 매출은 15% 가까이 감소하였음.
- 순이익은 전년대비 4분의 1수준으로, 118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음. 2022년의 순이익은 426억 달러였음. 베트남에 위치한 4 곳의 공장은 삼성의 매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30%, 순이익의 3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타이응우옌에 위치한 삼성 베트남 법인은 매출 230억 달러, 순이익 17억 달러로 기존처럼 삼성의 베트남 법인 중 가장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였음. 다만, 지난 2022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8% 이상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 현재 삼성 타이응우옌은 삼성의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제조 공장임. 삼성 타이응우옌 투자는 지난 2013년,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투자자본금은 늘어나 75억 달러에 달함.
- 박닌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SDV)의 매출, 순이익 또한 감소하였음. 지난 2023년 박닌에 위치한 두 생산공장은 각각 150억 달러, 1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였는데, 이는 2022년 대비 15%, 6% 줄어든 수치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의 순이익은 11억 달러,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SDV)의 순이익은 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평년대비 10% 감소한 수준이었음.

- 호치민시에 위치한 삼성 호치민 가전 복합단지(SEHC)의 경우, 매출 46억 달러, 순이익 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삼성 호치민 가전 복합단지(SEHC)는 2023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4.2% 증가하여 베트남에 위치한 삼성 법인 중 유일하게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였음.
- 한편 삼성은 현재까지 베트남에 18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투자 규모를 20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관련기사 링크:

<https://vnexpress.net/bon-nha-may-tai-viet-nam-gop-33-lai-cua-samsung-4714116.html>

## ■ 베트남 내 배터리, 포장지 재활용 관련 조건을 갖춘 곳은 24개 기업으로 확인

- 베트남 내 24개 기업이 타이어 튜브, 배터리, 윤활유, 포장지 재활용 관련 조건을 만족시킬 준비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4개 기업 중 대부분이 베트남 북부, 남부의 대형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타이어 튜브, 산업용 배터리, 건전지, 윤활유 및 포장지를 생산, 수입하는 업체들은 의무 비율, 규격에 따라 재활용할 의무가 있음.
- 베트남 자연환경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에 타이어 튜브, 배터리, 포장지 등 품목의 재활용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총 24개가 있음. 베트남 자연환경부는 24개 기업 리스트 발표는 생산 및 수입 업체들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재활용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고, 협력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24개 기업 리스트 상의 기업들 중 13개 기업들이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박닌 성, 하이즈엉 성, 박장 성, 빈푹 성에 위치하여 북부 지역이 전체의 50% 가까이 차지하였음. 이외에는 빈즈엉 성, 롱안 성, 빈푹 성 등에 위치한 11개 기업들이 베트남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베트남 자연환경부는 생산 또는 수입 업체가 금번 발표된 재활용 관련 24개 기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통해서 재활용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는 재활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베트남 내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 규정은 전년도에 상품 판매, 서비스, 수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됨. 생산자의 경우 300억 동, 수입자의 경우 200억 동이 기준이며,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기사 링크:

<https://vnexpress.net/24-doanh-nghiep-du-dieu-kien-tai-che-ac-quy-bao-bi-4715345.html>

## ■ 베트남 총리 Viettel, VNPT, Mobifone에 반도체 칩 연구할 것을 요청

- 팜 민 쯔언 베트남 총리(Pham Minh Chinh)는 Viettel, VNPT, Mobifone, GTEL을 비롯한 공기업들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 지난 2월 말, 팜 민 쯔언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공기업의 역량 강화, 경제 회복, 디지털화, 개혁개방 등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 중, 원거리 통신 기술과 관련된 기업, 단체들에게는 투자 프로젝트, 인프라 보급, 플랫폼, 디지털 프로그램,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을 촉진하도록 지시가 있었으며, Viettel, VNPT, Mobifone, GTEL에게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하여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첨단 산업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도록 하였음.
- 현재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며,

그 중요성은 향후 30~50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베트남 반도체 산업 국가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에 있어서 반도체 칩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여러 국가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9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 국가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음.
- 한편, 팜 민 쩐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팜 민 쩐 베트남 총리가 지난 3월 19일 워싱턴DC에서 미국 반도체 업계 임원진과 오찬을 갖고 베트남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는 등 ‘반도체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링크:

<https://vnexpress.net/thu-tuong-yeu-cau-viettel-vnpt-mobifone-di-dau-nghien-cu-u-chip-ban-dan-4714320.html>

## ■ 베트남 전문가들, 베트남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제시

-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적극적인 개혁개방 등을 제시하였음.
-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개혁개방, 발전을 통해서 베트남의 빈민국에서 중진국에 가까운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었음. 현재 베트남은 2030년까지 중진국 중 최상위 소득국가로 발전시키고, 2045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다만, 현재 베트남이 마주한 어려움은 최근까지의 경제 발전 속도, 연평균 6%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선진국 반열에 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베트남보다 일찍 발전한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쩐 반 토(Tran Van Tho)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의 베트남 경제 발전 성과는 상당하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에 이르지 못하는

했다며, 산업 부분에서 경제를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음. 또한, 과거 황금 인구구조 시기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산업화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음.

- 비록 공산품들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베트남이 참가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임.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베트남의 역할은 조립 공장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차 가공품, 부품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되었음.
- 일본국가정책연구원(GRIPS)의 켄이치 오노(Kenichi Ohno) 교수 또한 베트남의 부족한 엔지니어, 첨단기술 과학자, 낮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FDI에 의존적인 점,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가 낮은 점 등을 언급하였음.
- 켄 반 토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복을 위해서 베트남은 강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여 여러 능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쇄신을 위해서 현재 비공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공식화하고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
- 이외에도 베트남은 생산요소 시장을 개혁, 개발하고, 고기능 노동자의 공급,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정치 지도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경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나서야하며, 전문적인 기술관료들이 헌신적이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음.

관련기사 링크:

<https://vnexpress.net/chuyen-gia-goi-y-cach-viet-nam-vuot-bay-thu-nhap-trung-binh-4714247.html>